B4122 사랑 16-06-21a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고….. 비록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에 관 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안의 모든 것이 때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집에서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집을 간수하는 사람이지 가정을 만드는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고 가구에 광을 내는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자녀들은 청결을 배우겠지만 신성을 배우지 못한다.

사랑이란 먼지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찾는 일이다.

사랑은 깨끗하게 닦아 놓은 유리창에 새롭게 묻혀진 적은 손자죽에 미소를 질 수 있는 일이다.

사랑은 업질러진 우유를 닦기 전에 아이의 눈물을 먼저 닦는 일이다.

사랑은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기 전에 아이를 먼저 안아주는 일이다.

사랑은 시련 속에 존재한다.

사랑은 꾸중이요 힐책인 동시에 사랑의 반응이다.

사랑은 갓난 아이와 함께 기어 다니고 한두 살 짜리 아이와 함께 거르며 너댓 살 짜리 와 함께 달리는 일이고 그들이 청소년이 되면 함께 정도에 서서 성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사랑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완전해진 집에서 영광을 느꼈지만 이젠 내 자녀의 완전에서 영광을 추구한다.

엄마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훈은 사랑이다.

이상입니다. 읽어볼 수록 마음에 닿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인이 집밖에 나갔습니다. 세사람의 백발 노인이 잔디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 부인은 세 노인을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들어 오셔서 음식을 잡수세요.” 라고 그 부인은 노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인에게 남편되시는 분이 안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다고 하자 그들은 부인만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후에 남편이 귀가를 한 후에 그 부인은 다시 그 노인들을 집안으로 돌어 오시도록 권했습니다.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세분의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그 세분은 자기네 들의 이름이 “부”, “성공” , “사랑” 이라고 하면서 셋이서 함께 들어갈 수없다고 하고 그 중의 한사람만을 집에 데려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부인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를 부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성공”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 사랑”을 부르시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부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부인이 나가서 “사랑”이라는 노인에게 들어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도 “부”도 함께 따라들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저는 “사랑”을 들어 오시라고 했는데 왜 함께 들어 오십니까?” 라고 다른 두분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 당신이 “부”나 “성공”을 초청을 했으면 다른 두 사람은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 “사랑”을 초청하면 다른 두사람도 함께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부와 성공이 항상 함께 하거든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미덕 중에서 사랑은 지상의 미덕이겠지요. 성경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끝